

OPP필름, 중국산 5년간 “반덤핑”

기획재정부, 인도네시아·타이산도 ... 폴리에스터 장섬유는 3년 연장

수입 OPP필름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10월29일 제321차 회의를 열어 중국·인도네시아·타이산 OPP(Oriented Polypropylene) 필름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뒤 50일 이내에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반덤핑관세율은 중국산이 3.89-25.05%, 인도네시아산은 4.43-5.98%, 타이산은 3.48-10.55%로 결정됐다.

OPP필름은 식품, 담배 등의 외포장재나 앨범·접착테이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삼영화학, 필맥스, 화승인더스트리 등 3사는 OPP필름을 덤핑판매해 매출 감소, 영업이익 악화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3년 11월 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타이완·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Polyester)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덤핑방지관세 2.22-8.69%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은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덤핑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 등의 급격한 생산 증가로 2012년 11월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30>